

화순군, 2024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7일까지 신청, 화순군 2개 분야 11명 추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024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2개 분야(화순군 추천분야) 신청을 인구청년정책과 평생교육팀에서 접수한다.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은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총 3개 분야로 나뉜다. 신청 자격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전남도 내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이다. 전남 사랑 도민증이 있는 향우의 대학생 자녀도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장학생 선발 신청·접수는 희망하는 장학금 종류에 따라 2곳 중 1곳을 선택해 접수한다. 진흥원이 직접 선발하는 분야는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jntle.kr) 접수(주요 사업-사업 신청)하

고, 화순군 추천 분야인 한울타리(중·고·대학생)와 해양에너지(대학생)는 군청 인구청년정책과 평생교육팀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추천 인원은 총 11명이다. 한울타리 장학생 9명(중2, 고3, 대4)은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며, 해양에너지 장학생 2명(대학생)은 등록금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1인당 중·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150만 원이다.

또한 군 추천 인원과과는 상관없이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대학생은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분야별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hwasun.go.kr/lll) 공지 사항 또는 전남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jntle.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평생교육팀으로 문의(061-379-3352)하면 된다. /이문수 기자

나주시, C형간염 무료 항체 검사

선착순 300명...신분증 지참해 보건소 방문

나주시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무료 항체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에 감염됐을 때 이에 대응하는 신체의 면역반응으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한다.

질환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을 통해 감염된다.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소독되지 않은 침의 사용, 피어싱, 문신을 새기는 과정 등에서 감염될 수 있다.

대부분 무증상으로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급·만성 간질환으로 진행돼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발병될 수 있어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소는 올해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 주민 거주

비율이 높은 마을경로당 4곳, 한센인 마을 2곳에 찾아가는 전수 검사와 보건소 내방을 통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나주시 보건소 임상병리실을 방문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검사 1주일 후 문자로 발송되며 양성 판정을 받은 40세 이상 시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평생 무료 간암 검진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고 국가건강검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감염이 될지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검사가 필수인 질환"이라며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통해 간암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철 기자

담양군, 담빛수영장 재단장

담양군이 군민에게 다양한 운동과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담빛수영장을 개선하고 있다.

군은 먼저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 수영장 관련 전문체육인(센터장)을 채용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강습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별 강습반을 확대 및 운영시간을 연장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영장 수질정화 시간과 횡수를 단축했으며, 앞으로 생존수영 교실,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반 개설, 수영대회 개최, 친절 우수직원 선발 등 다방면의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사랑을 받는 체육시설로 거듭나고자 한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9일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한 군남면 반안리 정권옥(49) 농가 모내기 현장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 작업을 도왔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2024년 첫 모내기 실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9일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한 군남면 반안리 정권옥(49) 농가 모내기 현장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 작업을 도왔다.

올해 첫 모내기는 작년에 비해 하루 늦은 것이며,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진행돼 6월 중순까지 약 9,500ha의 경지에서 모내기가 완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생종 벼 조기 재배는 4월 하순에 이양해 8월 하순에서 9월 초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오는 태풍 등 기상재해를 피할 수 있어 도복, 수발아, 수량 감소, 미질 저하 등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회피할 수 있고, 추석 전 햅쌀 시장의 선점으로 가격경쟁력 향상, 농번기철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 쌀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기계 구입비 지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등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소장 고윤자)는 4월말~5월초 자주 발생하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저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육묘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률 기자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참여 확대

장성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할 4기 '액션그룹'을 23일까지 모집한다.

△홍보(촬영·디자인) △문화(문화·예술) △관광 △환경(환경·산림) 4개 분야, 장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 10명 이상이 결성한 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은 앞선 지난 2019년 축령산을 활용한 '편백숲 어울림 치유여행 프로젝트'가 선정되며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축령산 숲배움터가 덴마크 환경교육재단으로부터 국내 최초 '숲배움터 국제 인증(LEAF)'을 획득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사업에도 포함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마을여행사 '올로와장성'은 체류형 숲 여행 프로그램, 지역 수공예 제품을 파는 '봄봄 프리마켓' 등 개

성 있는 콘텐츠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뜬해진 관광자원을 되살리는 데도 힘썼다. 금곡영화마을과 홍길동테마파크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숲 가치 보전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이번 4기 '액션그룹'은 신규그룹은 물론 기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참여 그룹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시, 자부담 20% 포함 2천~5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신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문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js3949002@naver.com)로 전송하거나, 사업단 사무실(홍길동테마파크 전시관, 황룡면 아곡리 384)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유광종 기자

